

<총론> 북한의 경제위기, 어디까지 진행될까?: 2020년 북한거시경제동향 분석과 2021년 전망

이석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suklee@kdi.re.kr

I. 서론

2020년 북한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외부 관찰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신음하는 가운데 북한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의 곤궁함과 정책의 실패를 직접 사과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2020년 북한경제는 어떤 이유로 얼마나 어려웠던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2021년에는 호전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2020년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더욱 커지는 것일까?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현재의 수준에서 어떤 대답이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본고와 함께 발표될 2020년 분야별 북한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논문들이 제시하는 여러 관찰 결과들을 하나로 집약하여 정리한다.¹⁾ 둘째, 이들 관찰 결과들을 종합하여 2020년 북한의 거시경제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의 경제적 함의를 토론한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과 이슈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2021년 북한경제의 기본적 방향성에 대해 간단히 전망한다.

그런데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고의 여러 한계를 미리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자칫 생경하게 보일지 모르는 본고의 논의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

1) 이러한 분야별 논문은 김규철, 「코로나19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영향」; 이종규, 「북한의 재정 충격, 경제적 영향은?」; 최지영, 「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을 통해 본 북한경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수치 데이터들은 최영운,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에 기초한다.

데 도움이 된다고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본고의 작성 시점에서 오는 한계가 뚜렷하다. 본고는 2021년 1월에 작성되었는데, 이 시점은 2020년 북한경제를 엄밀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데에도, 2021년 북한경제를 체계적으로 전망하는 데에도 너무 이르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각종 정보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수치 데이터에 있어 시계열이 완전하지 않거나 신뢰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비수치 정보 역시 얼마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본고에서는 분석 프레임의 한계가 크다.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과 서로 대립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이들 논란과 시각을 정리하여 하나의 완성된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를 분석하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특정의 시각과 프레임에만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생산된 결론 역시 얼마나 객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본고의 논의가 엄밀하고 과학적인 경제학적 분석의 산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본고는 오랫동안 북한경제를 바라본 특정의 외부의 관찰자가 2020년과 2021년의 북한경제에 대해 자기의 직관적 생각을 풀어놓은 하나의 에세이에 더욱 가깝다. 다만,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에세이라도 조금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본고의 집필 이유이다. 부디 본고가 논란보다는 관대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0년 북한경제에 대한 다양한 관찰 결과를 집약한다. 이를 위해 북한경제를 ‘무역’, ‘생산’, ‘시장과 가격변수’, ‘재정’ 등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집대성하여 2020년 북한의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관찰 결과 및 이미지들이 실제로 어떤 경제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토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관찰된 북한경제의 여러 현상들이 김정은 시대 들어 등장한 북한의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유지와 운영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들을 통해 2021년 북한경제의 기본적 방향성을 전망한다. 이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의 북한경제가 1990년대 중후반 경제위기 당시의 북한경제와 얼마나 유사한지, 과연 북한의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1년 북한에서 흑사라도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이슈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북한경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집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II. 관찰 - 제재와 팬데믹의 이중 충격과 혼란

먼저 2020년 북한경제에 대한 관찰 결과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자. 현재까지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찰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2020년 북한의 거시경제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결과를 크게 ‘무역’, ‘생산’, ‘시장과 가격변수’, 그리고 ‘재정’ 등 네 개의 분야로 나누어 집약 정리한다. 그리고 이들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2020년 북한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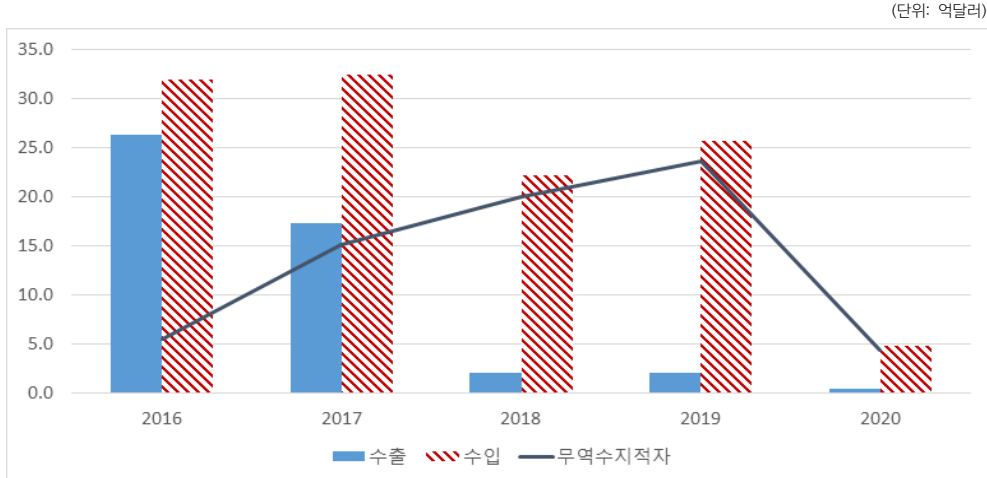
1. 무역과 생산

2020년 북한경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라는 두 가지의 부정적 충격이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극명하게 드러났던 분야가 바로 대외무역이었다. 2017년 이후 지속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무역이 이미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에는 새로운 코로나19 사태마저 가세함으로써 무역 자체가 아예 ‘실종(?)’되는 수준으로 붕괴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²⁾ 이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수출 0.5억달러, 수입 4.9억달러로 총액이 6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수출은 78%, 수입은 81%가 하락한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2018~1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이 그간의 대북제재로 이미 과거의 절반 이하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평균 58억달러에 달하던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2018~19년에는 연평균 26억달러 수준으로 거의 60% 가깝게 급락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서도 무려 80% 수준의 무역액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2020년 북한의 무역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대외무역의 충격과 관련하여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이후의 대북제재로 인해 2019년까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과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무역 감소를 이끌어 온 것은 주로 북한의 수출이었다. 실제로 2019년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 폭과 범위에 있어 수입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 2020년 북한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언급한 김규철(2021)을 참고하라.

[그림 1] 북한의 대중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 적자



자료: 김규철, 「코로나19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2021의 p.58의 [그림 1]을 그대로 인용함.

주로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행위를 차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일부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2020년 들어 상황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20년의 경우에는 북한의 수출보다는 오히려 수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무역 자체가 아예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당연히 이는 새로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때문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위험이 감지된 2020년 초기부터 아예 북중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강경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그간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그나마 이루어지던 북한의 대중국 수입 역시 2020년 초기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차단 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됨으로써 2020년 내내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수입은 물론, 밀수와 같은 비공식적인 수입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찰된다. 2017년 이후 대북제재의 강화로 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북한의 대외무역이 2020년에는 새로운 코로나19 사태로 수입마저 불가능해짐으로써 사실상 대외교역 자체가 '실종'되는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이러한 대외무역의 충격은 2020년 북한의 산업생산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관찰된다. 그간의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 산업에서의 타격으로 인해 전반적 산업활동이 이미 정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2020년에는 해외로부터의 수입마저 불가능해짐으로써 일반적 산업활동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 기계류의 조달마저 차단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³⁾ 물론 이처럼 산업활동이 침체에 빠지는 경우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당국은 계획경제의 복원 또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등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노력 동원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침체에 빠진 산업을 정부의 강제적인 자원 동원 노력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만회해 보려 시도한다는 뜻이다. 그간 북한 역시 이러한 관행을 지속하였으며, 실제로 2020년의 경우에도 ‘80일 전투’와 같은 대대적인 노력 동원 캠페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2020년 북한경제의 흥미로운 특징은 이러한 노력 동원 캠페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강제적인 자원동원 정책도 성공하기가, 아니 정책 자체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이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당국의 대중적 정책 캠페인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이며 군집적이고 상시적인 인력 동원에 기초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면서 북한 안에서 이러한 상시적인 인력 동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북한의 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의 어떤 정책도 성공적이지 않았으며, 80일 전투를 포함하여 이른바 ‘말로(만) 하는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유의미한 경제정책 역시 실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20년 북한의 산업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2017년 대북제재 이후 침체된 상황이 더욱 극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2020년 북한의 산업생산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북한의 산업활동이 김정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추진해 온 대형 경제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경제문제에 대한 연속적이며 이례적인 언급이다. 대표적으로 그간 북한은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핵심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원산 갈마 관광 지구의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당초 2019년에 예정되어 있던 이의 완공을 2020년 4월까지 연기하여 실현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이의 완공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가장 중점적으로 건설을 추진했던 평양종합병원 역시 아직도 최종 진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처럼 2020년 북한경제에서는 북한 당국이 그간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추진해 온 경제 프로젝트들조차 진행이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성공적이라고 발표한 몇몇 프로젝트들 역시 그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2020년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눈물을 보이고,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는 그간의 경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는 모습을

3) 실제로 2020년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최대 수입품은 대두유와 담배 같은 일상 소비재로서 그간 수입의 주류를 이루었던 광물성 연료, 플라스틱, 섬유와 같은 산업생산 관련 제품들은 수입이 매우 제한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보였다. 만일 2020년 북한의 경제상황과 산업활동이 일반 북한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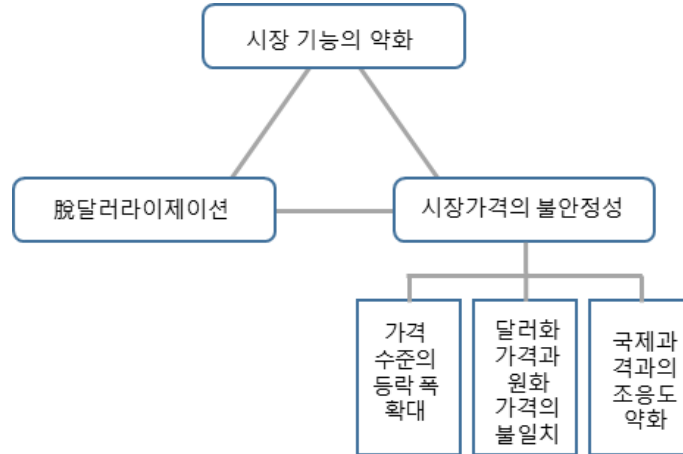
2. 시장과 가격변수들

한편, 2020년 북한경제에서 발생한 가장 흥미로운 움직임은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관찰되었다.⁴⁾ 실제로 2020년 북한의 시장에서는 이제까지와는 매우 다른 세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는 시장 기능의 급속한 약화이며, 둘째는 이른바 脫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sation)의 경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시장 가격변수들의 불안정성(destabilization)이다. 무엇보다 먼저 2020년 북한경제에서는 그간의 추세와는 달리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그 결과 시장에 의존하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매우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물론 2017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시장 거래 역시 위축되는 등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자체가 정체에 빠지는 경향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⁵⁾ 그러나 2020년 들어 이러한 정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은 물론,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지역적 시장 기능의 마비 현상 역시 관찰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강제적 시장 규제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반 경제변수들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2020년 내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북한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특정 영역 전체를 봉쇄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차단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물리적으로 북한의 시장은 격일제로 열리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시장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내세워 대중국 밀수와 같은 비공식 교역을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이것이 공식 교역의 급락과 더불어 북한시장으로의 상품 유입을 크게 위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더해 그간 북한시장의 발전을 촉진시켰던 제반 경제변수들 역시 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우선 밑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그간 북한시장 거래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던 달러화 등 경화의 사용(달러라이제이션)이 불가능해지거나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던 북한의 시장 환율과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4) 2020년 북한의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앞서 언급한 최지영(2021)을 참고하라.

5) 이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KDI 북한경제리뷰에 발표된 2019년 북한경제동향 및 2020년 전망 관련 논문들을 참고하라. 이 중 특히 이석, 「(총론) 2019년 북한의 거시경제동향 평가 및 2020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2020 및 김석진, 「대북제재가 북한의 시장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2020이 자세하다.

[그림 2] 2020년 북한의 시장 동향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경제변수들의 변화는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시장거래 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요컨대 2020년 북한경제에서는 그간의 추세와는 완전히 다르게 북한의 시장이 물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사실상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장 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2020년 북한의 비공식 경제영역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바로 脫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sation)의 현재화 경향 또는 시도이다.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간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를 특징짓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달러라이제이션이었다. 북한주민들이 달러화 등 경화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자극하여 교역과 시장을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달러화로 표시된 국내의 시장가격 변수들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달러라이제이션은 2013년 이후 북한경제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변화의 하나였고,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가 그나마 안정적 발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달러라이제이션 경향은 2017년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제재로 인해 북한의 외화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사용되는 절대적인 달러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통화의 거래 비용을 (급)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이다.⁶⁾ 한마디로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통화(달러)공

급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상당수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주목할 사실은 2020년 북한경제에서는 이와 연관된 脫달러라이제이션의 경향 또는 시도가 매우 뚜렷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그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2020년 북한의 경제 당국은 주민들의 달러화 등 경화 사용을 아예 불허하거나 강력히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심지어는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달러화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의 경우에도 달러화 등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북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하게끔 강제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脫달러라이제이션의 경향 또는 시도가 일반 북한의 시장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북한 당국이 脫달러라이제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역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0년 북한경제에서는 2013년 이후 북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부정되고 북한 당국에 의한 脫달러라이제이션의 경향 또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脫달러라이제이션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2020년 북한경제에서는 제반 시장가격 변수들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북한의 시장환율과 제반 시장가격들은 국제시장 가격과 조응하는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20년 들어 이러한 가격변수들은 예년에 비해 크게 불안정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가격변수들의 등락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일부 상품의 경우 달러화로 표시된 가격과 북한 원화로 표시된 가격이 서로 다른 추세를 보였고, 셋째는 이들 일부 상품의 경우 가격 수준이 중국을 비롯한 국제가격의 수준에서 더욱 이탈했을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선 <표 1>과 [그림 3]은 2020년 북한의 시장환율 움직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시장환율 등락 폭은 이전 연도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18~19년 북한의 월별 환율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치와 최소치를 구해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약 1~6% 수준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2020년의 경우 북한의 월별 시장환율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는 무려 25%가 넘는다. 이는 2020년 들어 북한의 시장환율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급등락을 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6) 이러한 분석 방법 및 설명 가설에 대해서는 이석, 「북한의 새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6월호, 2019를 참고하라.

<표 1> 북한의 월간 시장 환율 변동 폭 추이, 2017~20년

(단위: 북한 원/달러,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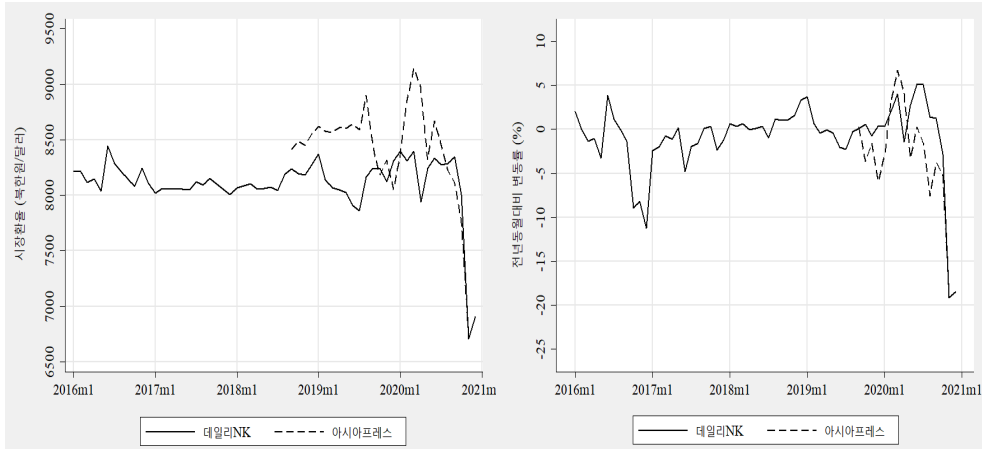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월간 최대 (A)	8,127	8,251	8,347	8,414
월간 최소 (B)	8,000	7,734	7,830	6,713
A/B	1.01	1.06	1.06	1.25

주: 환율은 데일리NK의 관측치를 KDI 북방경제연구실이 조정한 값을 사용함.
 자료: KDI 북한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3] 북한의 시장 환율 추이(북한원/달러)

환율 수준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



주: 1) 데일리NK는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의 평균가격임.
 자료: 최지영, 「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을 통해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 2021의 p.76의 [그림 2]를 그대로 인용함.

그리고 그 원인은 2020년 10월 들어 갑자기 북한의 시장환율이 무려 30% 이상 절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뒤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2020년 들어 북한의 시장가격 변수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급격하게 변동했다는 점이다.

또한 <표 2>는 2020년 북한 평양의 시장 쌀가격을 북한 원화 및 달러화로 표시한 값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이들 두 가지 가격의 움직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0년 9~11월 북한 원화로 표시한 쌀가격은 kg당 4,750원에서 4,600원 그리고 4,400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달러화로 표시한 쌀가격은 9월의 0.566달러 수준에서 10월에는 0.575달러 그리고

<표 2> 2020년 북한의 월간 시장 쌀가격 - 원화 표시 vs. 달러화 표시(평양 기준)

	북한 원화 쌀가격(원/kg)	달러화 기준 쌀가격(\$/kg)
1월 평균	4548	0.540
2월 평균	5472	0.658
3월 평균	4933	0.588
4월 평균	4525	0.570
5월 평균	4323	0.526
6월 평균	4126	0.497
7월 평균	4108	0.497
8월 평균	4357	0.525
9월 평균	4750	0.566
10월 평균	4600	0.575
11월 평균	4400	0.655
12월 평균	4750	0.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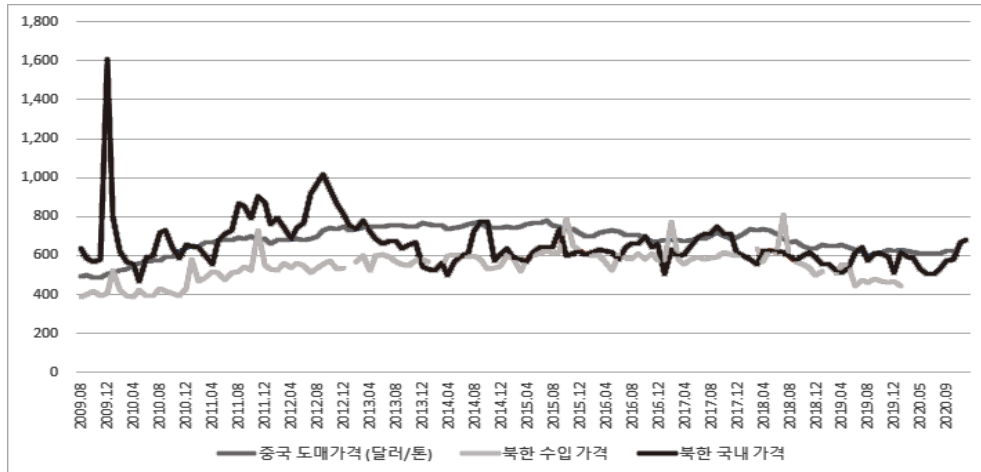
주: 환율은 데일리INK의 관측치를 KDI 북방경제연구소가 조정한 값을 사용함.
자료: KDI 북한통계데이터베이스.

11월에는 0.655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의 시장환율이 크게 변화한 것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북한 시장가격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북한의 원화 표시 가격과 달러 표시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그림 4]는 2009년 이후 (달러화 표시) 북한의 시장 쌀가격과 북한의 쌀 수입가격,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의 도매가격 등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초반까지 이들 세 가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서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중국의 도매가격 > 북한 국내가격 > 북한 수입가격’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⁷⁾ 그런데 2020년 하반기 들어, 특히 2020년 10월 이후 이러한 안정적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존재한다. 물론 2020년의 경우 북한의 쌀 수입가격을 확정할 수 있을 만큼 공식통계에 수입이 활발히 잡히지 않아 이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쌀과 같은 일부 상품의 경우 2020년 들어 중국 등 국제가격과의 조응 정도가 크게 약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7) 상대적으로 북한은 중국에서 열위의 쌀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여, 수입가격이 중국의 일반적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북한 국내에서는 중국산은 물론 이보다 더욱 선호되는 북한 쌀이 판매되므로 이들의 일반적 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시장 쌀가격 비교 - 북한 국내 가격 vs. 중국 수입 가격 vs. 중국 도매가격



주: 1) 중국은 2020년 1~2월 무역데이터를 2월 누계치로만 제공함.
 2) 2020년 북한의 대중 쌀 수입은 1~2월만 있던 것으로 집계됨.

자료: KITA(<http://stat.kita.net/>);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쌀시장동향」(<https://www.at.or.kr/article/apko336100/list.action>).

3. 재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0년 북한경제는 무역과 생산 그리고 시장에서 급격한 상황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조금 의외의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현상은 북한 당국이 발표하고 운영하는 재정의 측면에서도 그대로 관찰된다. 실제로 2020년 북한 당국은 재정의 조달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의 근본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 둘째는 새로운 재정 원천 발굴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셋째는 재정을 통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집행에서의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표 3>은 2020년 북한 당국이 직면했던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매년 초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각 해의 연간 재정(예산) 수입 증가율 계획(치)을 발표한다. 물론 이후 해당 연도의 실제 예산 수입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실적치는 이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 수입 증가 계획은 북한 당국 스스로가 이제까지의 북한 재정 및 예산 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치가 분명하다. 이들 수치야말로 북한 당국이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여 이후의 연간

<표 3> 북한의 예산수입 증가율 추이(전년대비)

(단위 %)

		2012~16 (김정은 집권 초기)	2017~19 (본격 제재 이후)	2020 (코로나19 사태)	2021 (재정 충격)
	수입 증가율	5.0	3.3	4.2	0.9
주요 수입	거래수입금	4.3	3.0	1.1	0.8
	국가기업이익금	6.7	3.8	1.2	1.1
나머지 수입	협동단체이익금	4.0	1.2	0.4	0.4
	부동산사용료	3.9	1.4	0.1	0.0
	사회보험료	2.7	0.9	0.0	0.3
	재산판매/가격편차 수입금	2.1	0.5	0.3	0.1
	기타수입	1.3	0.8	0.2	0.6
	특수지대수입금	4.3	1.8	0.3	0.2
	감가상각금	2.6	-	추가	0.1

주: 1) 표에 표시된 수치는 최고인민회의의 보고를 통해 발표되는 계획치이며, 2020년 실적치는 4.3%였음.

2) 기간별 연평균치의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항목 간 합산 또는 항목에 대한 누락이 존재할 수 있음.

자료: 이종규, 『북한의 재정 충격, 경제적 영향은?』,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2021의 p.49의 (표 3)을 그대로 인용함.

재정을 운영하는 기본방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 3>에 따르면 2021년 1월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2021년 북한의 예산 수입 증가율(계획)은 전년 대비 0.9%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인 2012~15년 동안 북한의 예산 수입 증가율 계획은 전년대비 연 평균 5%에 달했고, 2020년의 경우에도 이 수치는 4.2%를 기록했다. 그런데 2021년 들어 갑자기 이 수치가 0.9%로 급락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북한 당국 스스로가 현재 및 향후의 북한경제, 특히 재정의 확보를 매우 어렵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는 2020년 북한 당국이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물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2020년 실제 예산 수입이 계획치인 4.2%를 조금 넘는 4.3%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달성치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앞서 말한 2020년 북한 당국의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결코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2020년 북한 당국이 이러한 달성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결코 2021년 예산 수입 증가율 계획을 0.9%로 설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2020년 내내 북한 당국이 새로운 재정 원천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결코 재정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2020년 4월 새로운 북한 공채의 발행으로 알려진 자금 모집 시도이다. 물론 당시 북한의 공채가 실제로 발행되었는지, 아니면 공채와 유사한 다른 형태의 자금 모집이 존재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면 그것이 성공했는지 등의 여부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달러화 등 새로운 자금을 모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2020년 10월 이후 북한 원화의 급격한 환율 절상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새로운 외화(재정)자금 모집을 위해서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북한 당국의 시도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2021년 북한 당국의 예산 수입 증가율 계획을 2020년 대비 0.9%로 지극히 낮게 설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북한경제의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2020년 북한경제에서 북한 당국이 재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경제정책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실종된 이유는 지속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에 기인한다. 이는 북한 당국의 재정 능력과 크게 관련이 없다. 시장의 기능 약화와 불안정성 증대 역시 무역의 실종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물론 북한 당국이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자금을 모집하여 재정 능력을 확대한다면 내부적으로 생산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주의 경제당국의 특성상 해당 정책은 대규모의 집단적이고 군집적인 대중동원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2020년의 경우 북한 당국이 일정한 재정 능력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경제를 회복시키는 실제의 정책은 집행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 관찰 결과 - 제재와 코로나19의 이중적 충격과 경제 혼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0년 북한경제는 대외무역이 80% 이상 급락하고, 산업활동이 극도로 침체한 가운데, 그간 북한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탱해 주던 시장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되고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경제활동 전반이 일시에 위축된 것으로 관찰된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의 재정 능력 역시 어려움에 빠지고 이를 타개할 마땅한 정책 수단 역시 여전히 불확실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우선 물리적으로 2020년 북한경제는 위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혼란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2017년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그럭저럭 버티기를 지속했던 북한경제가 2020년에는 제재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이러한 버티기마저 힘든 상황에 내몰렸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20년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이러한 물리적 측면에 국한되는 것일까?

III. 해석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시스템의 기능 정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0년 북한경제는 제재와 코로나19라는 이중의 충격으로 인해 모든 거시경제변수들이 동시에 악화되는 심각한 물리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찰된다.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 영향만이 2020년 북한경제의 모습 전부일까? 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아니다'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2020년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경제변수들의 물리적 악화보다도, 오히려 그간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를 떠받쳐 오던 기본적인 경제적 시스템들이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해체의 수순에 돌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1. 해석의 준거 -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시스템

2012~13년 이후 형성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시스템은 과거 전통적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과는 물론,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던 '계획과 시장의 무질서한 병존'의 경제 시스템과도 다르다. 그것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여러 경제변수들이 등장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비록 제한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체 거시경제의 안정화 및 경제회복을 이루는, 북한경제에 있어서는 매우 새로운 경제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시스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전의 혼란한 경제현실로부터 태동되었다. 실제로 당시 북한경제는 2009년 12월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로 그간 대외교역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남북경협이 중단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화폐개혁 이후 급격한 통화 증발로 시장 물가와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함으로써 새롭게 발행된 북한 화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리고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경화의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북한경제는 이러한 어려움에 매우 흥미롭게 대응하였다.

우선 중국 등 여전히 교역이 가능한 해외와의 거래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제까지 북한의 내부 수요를 감안하여 대량 수출을 자제하던 무연탄 및 철광석과 같은 지하자원의 대규모 수출은 물론, 외부 정보의 유입을 우려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을 두었던 북한 노동력의 해외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남북교역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교역은 오히려 증대하였고, 해외의 임금 송금 등으로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까지 점차 달러화 등 상당량의 경화를 축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이 국내의 경제거래에서도 북한 원화가 아닌 달러화 등 해외의 경화를 사용하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 경향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달러라이제이션은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확보된 달러화 등 경화가 북한시장에 직접 유입됨으로써 새로운 거래를 촉발시키고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제는 국내의 거래를 통해서도 달러화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게 향상되었다. 여기에 제반 시장가격이 사실상 모두 달러화 가격에 기반하여 표시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중국 등에서의 국제가격과 조응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시장 환율과 가격이 안정세를 찾았다. 실제로 달러라이제이션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2~13년을 기점으로 그간 치솟기만 했던 북한의 물가와 환율이 갑자기 안정되어 이후 장기간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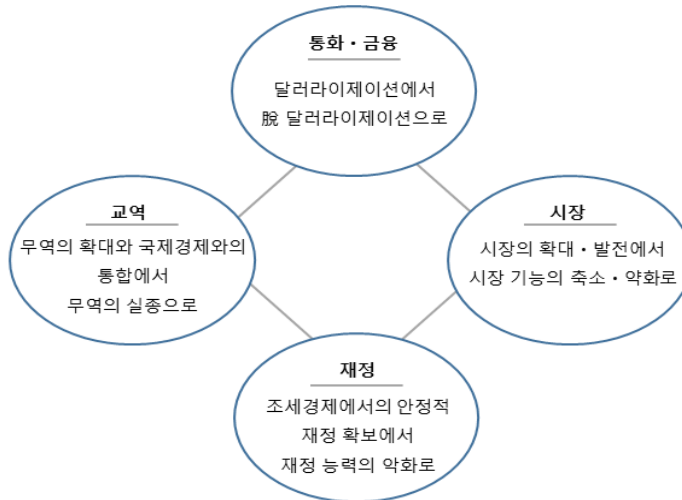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북한의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북한 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과거와 같이 때때로 시장을 억제하기보다는 반대로 시장을 격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공식경제부문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일련의 기업개혁과 금융 및 통화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사실상 이제 북한의 시장은 특정 경제주체들만이 아닌 북한의 국영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곳으로 변모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거시경제 전반을 움직여 나가는 중심적 위치를 시장이 차지한 것이다.

이처럼 2012~13년 이후 형성된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대외적으로는 무역,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시장이라는 두 축을 설정하고, 이를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경제변수로 연결하여 전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난점이 존재하였다. 북한정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사회주의 경제시스

템에서처럼 국영기업의 이윤을 직접 국가가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처럼 통화증발을 통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 역시 달러라이제이션의 진행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는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사실상 조세를 징수하거나, 또는 새로운 경제적 지대(rent)를 형성하여 이를 재정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시장 등 비공식 경제활동으로부터 각종 장세를 비롯한 다양한 부과금을 징수하거나, 기업 등 주요 경제 주체들에게 사회적 과제라는 명목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해외의 물품들을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지대를 점유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그 결과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는 과거와 달리 이제 사실상의 조세경제로 변화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시스템은 무역을 통한 국제경제와의 통합, 시장의 전일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달러라이제이션, 그리고 당국의 재정을 위한 조세경제 체계의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기능하면서 북한경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안정화되었으며, 일반 북한주민들의 후생 역시 증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림 5]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시스템과 2020년의 변화 - 횡단면적 해석



2. 횡단면적 해석 - 시스템의 기능 정지

그런데 2020년 북한경제는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김정은 시대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이 사실상 실종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와 같은 여타 국가와의 교역은 차치하고서라도 앞서 지적한 것처럼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은 시대 경제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시장 등 비공식 경제활동마저 심각한 기능 약화 상태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회적 봉쇄로 시장의 개최 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역적으로는 아예 일시적으로 시장 기능이 중단되는 상태가 나타났다. 이는 김정은 시대 경제 시스템의 핵심인 무역과 시장 모두가 2020년 북한경제에서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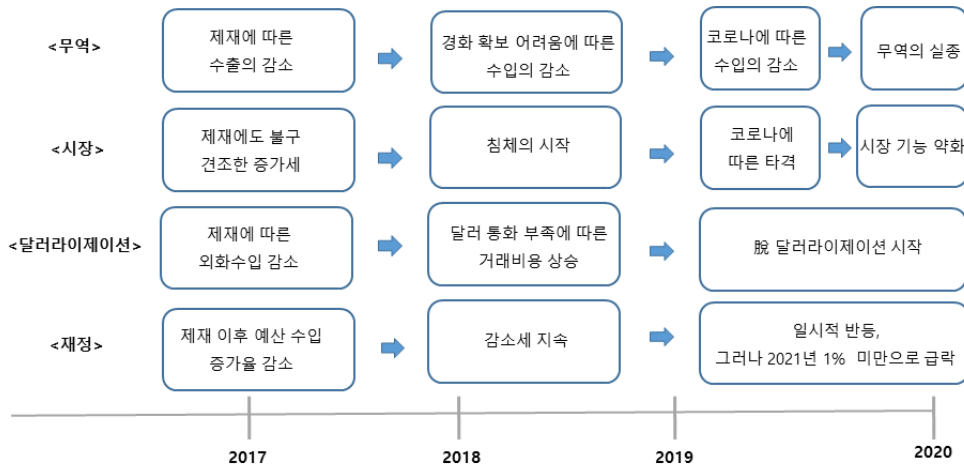
특히 이들 무역과 시장을 연결하는 달러라이제이션 경향이 역전되고 이로 인해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회복 기초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 당국은 이제 국내 경제거래에서 달러화 등 해외의 경화를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억제함으로써 脫달러라이제이션의 시동을 걸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안정세를 보이던 북한의 시장 환율과 물가에도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달러화의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북한 원화의 환율이 대폭 평가절상되는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거나 하면, 이제까지 안정세를 보였던 제반 시장가격 역시 갑자기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가격변수들의 불안정성은 당연히 일반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이제 脫달러라이제이션이 시작됨으로써 국내의 경제활동으로는 달러화를 벌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소비해야만 하는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벌써부터 이들은 상황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며 경제활동을 축소하고 보유한 달러를 가능한 소비하지 않으려 한다는 보고가 존재한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달러라이제이션 경향으로 경제적 인센티브가 증대하고 국내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기본적 시스템이 북한경제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 당국의 재정 활동 역시 순조롭지 않다는 관찰이다. 이제까지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조달되던 재정자금 역시 문제에 봉착했거나, 조만간 봉착할 것이라는 판단이 북한 당국 내부에서도 지배적임이 분명하다. 2020년 내내 북한경제에서 공채발행 등 새로운 재정자금의 확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 2021년 발표된 국가의 예산 수입 계획 역시 이제까지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의미는 매우 명확하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경제의 안정화와 빠른 회복세를 가능하게 했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2020년의 경우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 북한경제의 진정한 문제는,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경제변수들의 물리적 수치가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경제의 안정세를 가져왔던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든 상황으로 환경이 변모했다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시스템과 2020년의 변화 - 시계열적 해석



3. 시계열적 해석 - 시스템의 점진적 붕괴(?) 과정

더욱이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2020년 한 해에만 횡단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 시계열적 추세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를 유지해 왔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2020년에 이르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는 일종의 ‘시스템의 와해 또는 해체 과정’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선 무역을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12~13년 북한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북한무역은 2014~16년까지 크게 확대되어 정점에 이른다. 그러나 2017년부터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무역은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세는 제재의 특성상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출부문의 급격한 하락으로 시작된다.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의 감소로 경화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2018년 이후에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이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아예 전면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보면 2020년 북한무역의 실종 상태는 이 해에만 국한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2017년 이후 ‘수출의 급격한 감소 ⇒ 경화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수입의 점진적 감소 ⇒ 코로나19에 따른 수입의 급격한 하락 ⇒ 전체 대외무역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시장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17년부터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던 북한의 시장 거래가 2018~19년에 이르면 거래가 축소되고 이른바 ‘장사가 안된다’는 목소리가 빈번히 나올 정도로 침체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의 거래 일수 자체가 영향을 받고 지역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전반적 시장 기능의 위축 또는 부분적 마비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20년 관찰된 북한의 시장 상황 역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2017년까지 견조한 시장 증가세 ⇒ 2018년 이후 제재에 따른 침체 시작 ⇒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타격 ⇒ 본격적인 시장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점진적 과정의 산물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脫달러라이제이션과 이에 따른 시장 가격변수들의 움직임은 이보다 더욱 극적이다. 2017년 대북제재 이후 이와 연관된 요인들과 가설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이 모두가 북한경제의 수면 밑에 잠재해 있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터져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이후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타격을 받으면서 2018년과 2019년에 오면 북한 경제주체들의 소득 감소가 뚜렷해진다. 평양을 비롯한 내구재의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현상 등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리고 2019~20년에는 일시적으로 북한의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들이 관찰된다. 이는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에 유통되는 달러화가 줄어들어 사실상 거래용 통화공급이 감소하지 않고는 발생하기가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과연 언제까지 북한에서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었다. 북한의 경제거래에 필요한 달러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달러를 통한 거래비용이 급상승함으로써 달러라이제이션이 유지되는 한 오히려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을 전후하여 북한 당국은 이제 국내의 경제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드디어 2020년을 기점으로 '위로부터의 脫달러 라이제이션'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전후하여 북한의 시장 환율과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면 2020년 북한의 脫달러라이제이션 역시 '2017년 이후 제재에 따른 달러 공급 감소 ⇒ 2018~19년 북한 국내 거래를 위한 달러 공급 부족 현실화 ⇒ 2020년 달러화에 기초한 국내 거래 규제 정책 현실화 ⇒ 脫달러라이제이션과 시장 가격변수들의 이상 움직임 본격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경제의 수면 밑에서 잠재적으로 점점 강화되던 脫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2020년 비로소 수면 위로 등장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각에 기반해 보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재정과 관련한 수치의 변화 역시 예사롭지 않다. 이종규(2021)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듯이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예산 수입 증가율이 제재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나며, 특히 2021년의 경우 그 수치가 1% 미만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20년의 경우 이 수치는 4% 수준이어서 제재 초기인 2017~19년 평균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북한 당국의 일종의 계획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2020년의 경우 본래 북한 당국이 그간의 제재로 인해 피해를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 시도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앞서의 <표 3>에 나타난 수치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제재 이전 5% 수준의 예산 수입 증대 계획 ⇒ 제재에 따른 경제 및 재정의 악화로 예산 수입 계획 3% 수준으로 하락 ⇒ 당초 이를 만회하고자 2020년 예산 수입은 4% 이상으로 높이 설정 ⇒ 그러나 2020년 실제 경제 및 재정의 악화로 2021년 예산 수입은 1% 미만으로 축소 계획'. 김정은 시대 새로운 북한의 경제 시스템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던 재정 상황 역시 2017년 이후 제재로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0~21년의 경우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4. 해석 종합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시스템의 마비와 두 가지 질문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0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단순히 거시경제 변수들의 수치가 제재와 코로나19로 악화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오히려 그것은 2012~13년 이후 형성되어 김정은 시대의 경제 안정화와 회복을 도운 북한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할 정도로 구조적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2020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위기는 2017년 대북제재로 시작되어, 이후 북한경제 내부에서 꾸준하고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부터 드디어 전면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2020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진행에 있어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즉, 그간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를 유지하던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제 수명을 다하였는데, 이후 북한경제는 과연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모해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는 순간,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또 다른 질문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처럼 김정은 시대의 경제 시스템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북한경제에는 어떤 혼란과 타격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90년대 중후반 북한경제에서는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고, 이를 계획과 시장이 무질서하게 병존하는 시스템이 대체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2012~13년 새로운 김정은 시대의 경제 시스템의 등장을 전후해서도 화폐개혁의 실패 및 이에 따른 고통이 매우 컸다. 따라서 만일 현재 김정은 시대의 경제 시스템이 기능을 다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 될지도 문제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고통이 북한에 나타날 것인가가 더욱 큰 문제일수도 있는 것이다.

IV. 전망 - 불확실성에서 위기로

이제까지 우리는 2020년 북한경제를 관찰하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암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2021년 북한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코로나19 상황의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조기에 종식된다면 2021년 북한경제는 2020년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북한경제의 빠른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을 각각 가정하여 북한경제를 전망하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장에서는 이들 두 가지 전망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어떤 일یدن 최악을 먼저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2021년 북한경제 또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2021년 북한경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거의 1990년대와 같은

경제위기가 올해 다시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2021년 북한경제의 최악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1. 첫번째 질문 - 2021년은 1990년대와 얼마나 비슷할까?

먼저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위기를 생각해 보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1994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외부적 충격들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발생하였다.⁸⁾ 1980년대 후반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러시아로부터의 물자 수입이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1994년에는 중국으로부터 식량 등의 수입마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전체 경제가 일시에 마비되는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런데 2020년 북한경제 역시 이와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이후 지속되는 대북제재로 북한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돌발적 충격마저 가해진 것이다.

그런데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북한경제에 나타난 두 가지 충격의 크기는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위기가 시작되던 1994년도와 비교해 볼 때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 실제로 1994년 북한 대외무역의 규모는 전년에 비해 약 20% 정도, 1990년에 비해서도 대략 50% 정도 감소한 반면, 2020년 북한의 무역은 전년에 비해서도 무려 80% 가깝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북한경제가 받았던 대외적인 충격의 규모가 1994년 보다 오히려 컸으면 컸지 작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물론 대외무역의 충격에 따른 GDP 또는

<표 4> 북한경제의 비교 - 1994년 vs. 2020년

(단위: 백만달러, %)

	1994년 시기			2020년 시기		
	1990	1992	1994	2016	2018	2020
무역액						
(금액)	4,720	2,660	2,108	5,826	2,412	541
(전년비)	-	(-2.2)	(-20.2)	(7.3)	(-51.6)	(-80.7)
성장률	-4.3	-7.1	-2.1	3.9	-4.1	-

주: 1) 1994년 시기 무역액은 대외무역 총액, 2020년 시기 무역액은 북중무역 총액을 각각 의미함.

2) 모든 증가율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임.

자료: 1994년 시기: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996년호; 2020년 시기(2016~20년 1~7월(KITA, <http://stat.kita.net/>), 2020년 8~12월(중국해관통계, <http://english.customs.gov.cn/>); 성장률(한국은행(<http://ecos.bok.or.kr/>), 검색일: 2021. 1. 22).

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석,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5월호, 2020을 참고하라.

성장률의 변화 정도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매우 큰 폭의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충격을 매우 극심하게 받은 북한만이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20년 북한경제가 받은 경제적 충격의 크기는 1990년대 경제위기의 시작 시점과 비교할 때에도 유사하거나 결코 작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1994년과 2020년은 경제구조의 기능 변화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실제로 1994년의 경우 대외무역에서의 충격이 거시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시까지 북한을 지배했던, 배급제로 상징되던 사회주의적 북한 경제 시스템이 일거에 작동 중지되었다. 국영기업은 생산 물자를 배급받지 못하고, 주민들은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급격히 마비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0년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시스템을 지탱했던 무역이 실종되고, 시장이 약화되었으며, 脫달라라이제이션과 제반 가격변수들의 혼란 등 기존 시스템의 기능 마비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1994년과 2020년 북한경제 사이에는 개념적으로 두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적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자체의 반응기제이다. 예를 들어 1994년의 경제위기가 시작될 당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혼란으로 사실상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는 시장 역시 존재하지 않아 모든 주민들이 배급에만 경제생활을 의존하였다. 경제위기가 시작되더라도 일반 경제주체들 스스로가 대응할 수단 역시 크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2020년 북한경제에서는 스스로 핵 국가임을 표방하는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다. 그리고 현재의 북한경제는 그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장이 지배한다. 따라서 설사 2021년에 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당국의 정책적 여력과 시장의 반응 기제를 감안할 때, 위기의 강도와 형태는 1990년대와 다를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해도, 2020년의 상황을 관찰해 보면 그것의 현실적 의미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가 의문시된다. 실제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0년 북한 당국은 현실의 경제적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현실의 경제적 충격을 정책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만회하기보다는 코로나19의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이동을 오히려 통제해 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그 결과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역시 '말이 아니라 현실'로는 구체화되기 힘들었다. 시장의 반응 기제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봉쇄 조치가 일반화되면서 거의 발휘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면 2021년 현재 북한 당국의 정책적 역량이 1994년에 비해 더욱 확대되고 시장 자체의 반응 기제 역시 새롭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2. 두번째 질문 - 시장은 제대로 기능할까?

물론 2021년의 경우 2020년과는 달리 시장 기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만 한다면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경제위기가 재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와 관련해 앞서의 [그림 3]을 다시 살펴보자. 이미 언급했듯이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북한의 시장 원화 환율은 갑자기 큰 폭으로 절상되었다. 2017년 이후의 대북제재와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북한 원화가 대폭 절상되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설명 가설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북한의 외화 사용 금지, 다시 말해 脫달러라이제이션 조치의 시작으로 국내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에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가설이다. 둘째는 북한 당국이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 환율을 절상시켰다는 가설이다. 그리고 셋째는 역시 북한 당국이 국내의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 환율의 절상을 유도했다는 가설이다. 첫번째 가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화 절상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인 반면, 두번째와 세번째는 북한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환율 절상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먼저 첫번째 가설을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 당국은 2012~13년을 전후하여 달러라이제이션을 인정했으며, 그 결과 대다수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이 달러화를 보유하고 국내 거래에 이를 사용해 왔다. 물론 이들이 보유한 달러화 가운데 일부만이 국내 거래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외와의 교역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대외무역이 실종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달러화 가운데 해외의 수입을 충당할 수요분은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이에 더해 국내에서는 북한 당국이 달러화의 사용을 갑자기 중단하였다. 이는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달러화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설사 제재와 코로나19로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북한의 원화 환율이 크게 평가절상되는 것은 설명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밀수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라도 추가적인 달러 유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설명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북한 당국이 재정을 위해 환율 절상을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0년 북한 당국은 새로운 재정 원천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시스템에서 이러한 재원은 주로 주민들이 보유한 화폐를 징수하는 형태로 조달된다. 그것이 장세이든 사회적 과제이든 기업이 납부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금이든, 그리고 달러화로 납부하든 북한 원화로 납부하든, 무관하다. 그런데 만일 이 경우 인위적으로 시장의 환율을 절상시키고, 재원의 납부를 북한의 원화로 일원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이 경우 사실상 북한 당국에 흡수되는 달러화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절상된 시장환율만큼 일반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달러를 더욱 많이 원화로 환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늘어난 달러화 환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당국에 흡수될 것이며, 이는 결국 북한 당국의 재정 여력을 확충시키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표 2>를 다시 보자. 이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가격은 시장환율이 절상된 10월 직전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평양의 경우 7월 평균 1kg 당 4,100원을 전후하던 쌀가격이 8월에는 4,300원, 9월에는 4,700원을 상회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 식량 가격의 상승은 북한 당국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 가뜰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 분위기마저 악화된 상황에서 식량 가격이 치솟을 경우 취약계층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물론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경우 식량 가격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밑에서 언급하듯이 2020년의 경우 태풍과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북한의 식량 생산이 오히려 감소하고, 외부에서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역 중단으로 식량수입마저 여의치 않은 환경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원화 환율의 절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의 북한경제에서 북한의 시장가격은 중국 등지의 국제가격에 환율을 곱하고 여기에 일정한 이윤과 위험도 등 마크-업 비율을 적용한 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환율이 절상되는 경우 시장가격 역시 그에 상응하여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10월의 환율 절상은 이러한 시장가격 통제를 위해 북한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한 결과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 쌀의 시장가격은 원화 환율 절상에 따라 직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그 수준은 환율 절상 이전의 최고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들 설명 가운데 어떤 것이 현실적인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설명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현재의 북한 원화 환율은 전혀 자연스럽게 않거나 결코 장기간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脫달러라이제이션에 따른 수급 요인에 의한 설명을 보자. 만일 북한 국내에서의 달러화 사용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경우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은 서둘러 달러화를 북한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경제활동에 사용하거나 북한 당국에 납부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원화로 환전하는 달러화를 최소화하거나 환전 시기를 연기하려 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경제주체들은 이를 이용하여 달러화를 싼 값으로 매입하려 노력할 지도 모른다. 이는 북한 원화의 절상이 생각만큼 자연스럽게 않고, 일시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유지되기 힘든 현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나머지의 가설 역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이렇게 절상된 북한의 환율은 20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려 3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현재의 북한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뿐이다. 다시 말해 적어도 2020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시장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당연히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이에 따른 북한 당국의 정책 등 여러 환경 요인에서 기인하는 일일 것이다. 문제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환경 요인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이로 인해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북한의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서 2021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시장의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북한의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2021년에도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세번째 질문 - 정말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까?

이처럼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북한에 발생해도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990년대 중·후반 경제위기가 문제되는 것은 당시 급속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극심한 식량위기로 초래된 대규모 기근(famine)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21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 악화가 진행된다면, 그로 인해 1990년대 중후반의 기근과 같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까?

개념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부정적일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의 기근은 현대 경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형태였던 반면, 현재의 북한경제는 이러한 형태의 기근과 연관된 경제적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모두 변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는 일부 지역과 특정 계층의 사람이 아닌 사실상 전국의 모든 인구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시에 기근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는 당시의 북한과 같이 모든 식량을 철저히 국가의 배급에 의해서만 공급하는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식량(배급) 가용량 자체가 생존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에 한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현대 경제에서는 식량이 국가에 의해 배급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식량 가용량이 생존 필요량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게 방치되는 것 역시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기근은 매우 독특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2021년 현재 북한의 식량경제 역시 이러한 과거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했다는 점이다. 이제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은 부분적으로 국가의 식량배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자유롭게 식량을 매매하여 소비한다. 그리고 국가는 물론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들 역시 다양한 형태의 대외교역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식량 가용량이 장기간 생존 필요량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상상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2021년 북한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과거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전국적인 기근이 북한에 다시 나타난다고 가정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2021년 북한경제에서 지역적 그리고 계층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2021년 현재 북한의 식량 공급 상황이 좋지 않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2020년 북한의 식량 생산이 예년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외교역의

<표 5> 2020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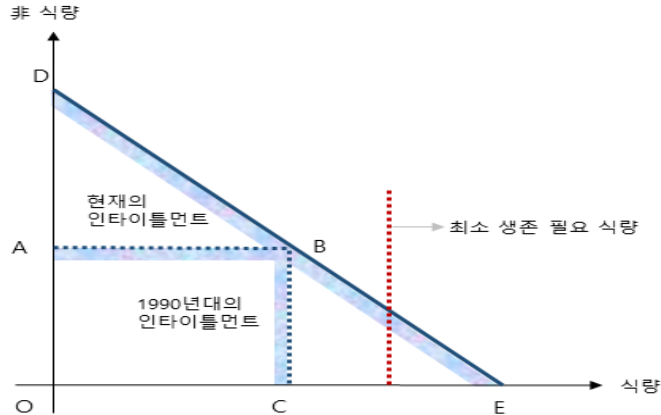
		계	쌀	옥수수	서류	맥류	두류	잡곡
재배면적(천ha)		1,838	511	740	343	85	131	28
수량(kg/10a)		-	395	204	157	188	115	71
2020년 생산량(만톤) (A)		440	202	151	54	16	15	2
2019년 생산량(만톤) (B)		464	224	152	57	15	14	2
2019년 대비	증감량(만톤) (A-B)	-24	-22	-1	-3	1	1	0
	증감비율(%) [(A-B)/B×100]	-5.2	-9.8	-0.7	-5.3	6.7	7.1	0

주: * 쌀: 정곡기준(쌀 수량 = 조곡 × 0.72)
* 서류: 감자(생체중의 25%), 고구마(생체중의 30%)
자료: 농촌진흥청, 「북한, 올해 식량작물 440만 톤 생산…전년대비 24만톤 감소», 2020년 12월 18일 보도 자료.

중단으로 국가와 일반 경제주체들에 의한 식량 수입이 순조롭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실제로 2020년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아예 기록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2021년에도 지속된다면 북한의 식량공급은 2000년대 이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공급 상황만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의 가능성을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북한의 식량경제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근의 경제학(economics of famine)에서는 식량과 기근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인타이틀먼트(entitlement)’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어떤 개인이 사회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이용하여 지배(command)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타이틀먼트 안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인타이틀먼트 실패(entitlement failure)’라고 부른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기근이란 바로 이러한 인타이틀먼트 실패와 사실상 동의어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후반 경제위기 당시 북한의 인타이틀먼트는 매우 흥미롭게 규정되었다. 당시 북한주민이 지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사실상 국가의 배급에 의존했기 때문에 해당 주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배급이 곧 그의 인타이틀먼트였던 것이다. 이는 [그림 7]의 사각형 OABC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 시장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인타이틀먼트 역시 변화했다. 이제 북한주민들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식량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림 7]의 해당 개인이 과거와 같은 분량의 국가 배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의 인타이틀먼트는 사각형 OABC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삼각형 ODE로 확대된다. 실제로 이러한 인타이틀먼트의 확대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비록 북한의 식량 생산이 극적으로 늘지 않았음에도, 북한의 기근이 종식되고

[그림 7] 북한의 인타이틀먼트 - 1990년대 vs. 현재



식량 소비가 늘어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⁹⁾

그런데 북한주민의 인타이틀먼트가 사각형 OABC로 주어져 있을 때 인타이틀먼트 실패가 일어나는 요인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해당 주민에게 주어지는 식량 배급 또는 공급이 생존 필요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non-food 배급 또는 공급이 늘어나거나 심지어는 화폐 소득이 증대해도 기근을 방지하지 못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북한주민의 인타이틀먼트가 삼각형 ODE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이 경우 인타이틀먼트 실패는 해당 개인에게 주어지는 ① 식량 공급 또는 배급, ② non-food 공급 또는 배급, ③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과 non-food의 상대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 요인 모두에 의해 인타이틀먼트가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식량의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의 인타이틀먼트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0~21년 들어 거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2017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교역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외화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주민들의 소득이 빠르게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인타이틀먼트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2017년 이후 북한주민들의 non-food 공급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당연히 북한주민들의 인타이틀먼트는 하방으로 축소 이동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림 8]에서 이는 소득 충격에 따른 인타이틀먼트의 축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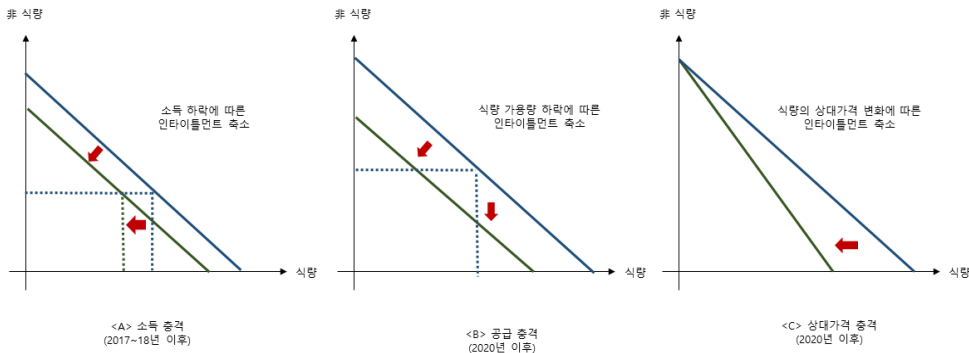
9) 이에 대해서는 이석, 「북한의 식량경제 변화와 국제적 대북협력」, KDI (비공개)연구자료, 2019를 참고하라.

표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앞서 언급했듯이 2020년의 경우에는 연이은 자연재해로 북한의 식량생산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교역 중단으로 식량 수입마저 여의치 않았다. 이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마저 감소시켜 또다시 인타이틀먼트 자체를 하방으로 축소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그림 8의 가용량 충격). 여기에 더해 2020년 하반기 들어 북한시장의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 원화 환율의 절상으로 잠시 반전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다시 크게 상승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식량 가격에 이 전에 비해 오히려 ‘폭등(?)’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 결과 2020년 하반기부터는 북한주민들의 인타이틀먼트에 있어 식량과 非식량의 상대가격마저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식량에 관한 인타이틀먼트가 또다시 추가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8의 상대가격 충격).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2021년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21년의 경제상황은 2020년보다도 오히려 악화될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소득과 이에 따른 非식량 공급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식량 생산이나 수입이 증가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식량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속되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에 이상이 생기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21년의 경우 북한주민들의 인타이틀먼트에 있어 식량과 非식량의 상대가격마저 비우호적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주민들의 인타이틀먼트는 2017년 대북제재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에 더욱 극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그림 8] 2017년 이후 북한의 인타이틀먼트 변화



2021년 정점에 다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이는 2021년의 경우 북한 내부에서 취약한 인타이틀먼트를 가진 일부 지역, 일부 계층의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협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전망 - 불확실성에서 위기로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북한경제에 대한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심지어는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의 인도주의적 비상상황 역시 완전히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 관련하여 분명히 해두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전망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 위에서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북한에서 올해 내내 지속된다는 전제이다. 만일 2021년 북한경제가 기대보다 훨씬 더 조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난다면 여기에서 언급한 부정적 전망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역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제이다. 현재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대외교역을 아예 차단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와의 방역 협력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만일 2021년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북한 당국이 이러한 태도를 변화시킨다면 여기에서의 부정적 전망도 크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대외교역이 빠르게 재개되고 남북 방역협력 등 외부세계의 협조로 북한경제 역시 점차 체력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 역시 존재한다. 여기에서의 전망처럼 2021년 북한의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외부세계의 입장으로는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본래 매우 폐쇄적인 사회로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사회적인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물리적 움직임 역시 활발하지 않다. 심지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북한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외부인들조차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 일부 지역의 특정 계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사실상 1994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외부세계가 본격적으로 이를 인지한 것은 이듬해인 1995년 하반기 북한 당국이 홍수 피해를 명목으로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한 이후부터 였다는 사실이 이러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V. 결론

본고에서는 2020년 북한의 거시경제동향을 평가하고 2021년을 간단히 전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북한경제에 대한 다양한 관찰 결과들을 집적하여 해석하는 동시에 이에 연관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2021년의 경제전망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얻어진 결론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2020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암울했고 2021년의 전망 또한 밝지 않았던 것이다. 본고에서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도달한 이러한 결론을 조금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북한경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라는 이중적 충격이 합치되면서 거시경제 변수들 모두가 일시에 악화되는 혼란을 경험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80% 가깝게 급락하고, 산업활동이 극도로 침체한 가운데, 그간 북한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탱해주던 시장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되고 또한 가격변수들마저 불안정해졌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전반이 일시에 위축된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북한 당국의 재정 능력 역시 약화되고 이를 타개할 마땅한 정책 수단 역시 여전히 불확실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둘째, 이러한 2020년 북한 거시경제변수들의 모습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 정지 또는 마비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2~13년 김정은 정권의 등장을 전후하여 형성된 북한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무역의 확대와 국제경제와의 통합, 공식부문을 포함한 시장(원리)의 전일화, 달러라이제이션과 가격 안정, 조세경제로의 전환과 재정 능력 확충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2020년 북한경제에서는 무역의 실종과 시장 기능의 악화, 脫달러라이제이션과 가격변수의 불안정성 증대, 재정 능력의 악화 등의 현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문제는 이러한 2020년의 현상은 그 해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2017년 이후 지속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그간 북한경제 내부에서 점진적이고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시스템이 2020년 일시적으로 단순히 마비된 것이 아니라 아예 일종의 구조적인 해체 과정에 돌입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셋째, 2021년에도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북한경제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오히려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하다. 실제로 2020년 나타난 북한경제에 대한 제재와 코로나19의 충격은 1990년대 경제위기 시작 당시 북한경제를 강타했던 소비에트 충격과 중국 충격에 비견할 만하다. 물론 현재의 북한경제는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나 시장과 같은 경제적 반응 기제의 측면에서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199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러한 역량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북한 당국은 경제보다는 코로나19 방지에 힘을 쓸 수밖에 없어 경제 활성화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북한의 시장 역시 코로나19 환경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북한경제에서는 소득과 식량 공급, 그리고 식량의 상대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점점 북한주민들의 식량 소비가 불리해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만일 이러한 추세가 2021년 악화된다면 일부 지역의 취약 계층의 경우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역과 함께 경제적 희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생산과 교역의 감소를 어떻게 해서든 줄여 보고자 시도한다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 못지 않게 이에 따른 경제적 위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본고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2020년 북한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코로나19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방역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인상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경제적 고통이 수반되는 일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이다. 2020년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면 이제 2021년에는 이를 기초로 그간의 경제적 피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세계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백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 북한이 국제적 코로나19 협력을 요청하는 것과 코로나19 백신이 등장하고 2020년 내내 북한 스스로가 코로나19 방지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둔 이후인 현재의 시점에서 국제적 코로나19 협력에 나서는 것은 분명 매우 다른 일이다. 현재의 경우 국제적 협력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어에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이의 성공을 기초로 조기에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2020년 북한경제는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악화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담대한 선택을 통해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경제가 빠르게 호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경술, 「북한 에너지부문의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 김규철, 「코로나19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1.
- 김석진, 「대북제재가 북한의 시장과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 김영훈, 「2019년 북한의 식량 수급 평가와 2020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 안병민, 「북한의 2019년 교통부문 평가와 2020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 이석, 「북한의 새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9.
- _____, 「북한의 식량경제 변화와 국제적 대북협력」, KDI(비공개)연구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9.
- _____, 「<총론>2019년 북한의 거시 경제 평가와 2020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 _____,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 이석기, 「2019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경제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 이종규, 「북한의 재정 충격, 경제적 영향은?」,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1.
- 정형곤, 「2019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 효과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 조남훈,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에 기반한 북한 군수공업의 변화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 최지영,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시장물가 및 시장환율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

뷰』, 2020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_____, 「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을 통해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1.

최영운,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21.

「북한, 올해 식량작물 440만 톤 생산…전년대비 24만 톤 감소: 2020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발표」,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0. 12. 18.

<웹사이트>

농촌진흥청(<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1. 1.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https://www.kotra.or.kr/>, 검색일: 2021. 1. 25).

데일리 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21. 1. 8).

아시아프레스(<https://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 검색일: 2021. 1. 15).

중국 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1. 1. 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s://www.at.or.kr>, 검색일: 2021. 1. 15).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검색일: 2021. 1. 8).

한국은행(<http://ecos.bok.or.kr/>, 검색일: 2021. 1. 15).

<기타>

KDI북한통계데이터베이스